



순천시 청년들이 그려낸 신청사 11개 작품 선정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공모 시상식 개최



순천시가 전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 신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한 '순천시 신청사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1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모전 참가팀 및 시민, 관내 고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13일 1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별 설계의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최종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유하광 학생이 제안한 'Suncheon Play Ground'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이규남 학생팀, 창원대학교 이희승 학생팀이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1개 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입선 5)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후 부대행사로 공모전 수상 대학생들과 건축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생 토크타임을 마련해 건축학과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제출해 준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 선정된 작품들은 확장 부지별로 건립될 신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청사 건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품들은 5월부터 순천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되어 그동안 미래 신청사의 모습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순천=김경호 기자

광양시, 미래 이끌어갈 전문여성인재 발벗고 나서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 발굴...사회참여와 정책 의견 반영

광양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여성인재를 찾는데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400명 이상의 여성인재 확보를 목표로 전문여성인재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맞춰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해 여성의 사회참여

를 확대하고, 각종 정책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대상은 정치·법률, 토목·건축, 행정,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여성인재로, 광양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과장급이상 ▲법인·협회·단체 임원 ▲각 단체의 리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전문 자격증 소지자 ▲국가·지방공무원, ▲문화·예술·체육 관련 전문가,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등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인재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 게시판에 직접 등록하거나 작성한 인재등록신청서를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벼 모판 1회 관주처리 도입

단 한 번의 방제로 본답 100일 간 병해충 사전 예방



나주시는 지난 4월 30일 공산면 농가 육묘장에서 '벼 모판 1회 관주처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연시회'를 개최했다.

벼 모판 1회 관주처리는 육묘종인 모판에 단 한 번의 관주처리로 본답

100일 간 병해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이다.

방제 작업에 드는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성공적인 육묘 관리를 통한 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벼 농가의 맞춤형 방제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 조기 제배는 한 번의 관주로 가능하나, 일 또는 이모작은 후기 병해충 발생여부에 따라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연시회에는 사업을 신청한 10개

벼 농가를 비롯해, 쌀 전업농 등 관심농가, 농업인상담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1회 관주처리 시연 및 주의사항, 기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연을 담당한 병해충 방제 전문기업 신젠타 관계자는 모판에 관주 처리 방법을 직접 선보이고, 살포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나주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벼 농가를 대상으로 1농가 당 사업비 100만 원(시비50%, 자부담50%)을 투입, 작물보호제, 비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벼 모판 1회 관주처리에 대한 내용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배기술지원과(339-7481~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경로당 일거리 마련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 경로당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 일거리 마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휴게·휴식공간인 경로당에 소일거리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작업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 일거리 마련 지원사업은 5월~12월까지 8개월간 추진되며,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개

소당 최대 300만원을 재료비 등으로 지원하며, 메주, 한과, 청국장, 장아찌 등 전통음식 제조 및 농산물을 생산하여 로컬푸드마켓, 사회적기업, 향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새로운 목재문화 선도할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광양시는 최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장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52억 원을 투입해 백운산자연휴양림 천년의 숲속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을 추진해 왔었다.

연면적 1,333.35㎡의 자연친화형 한옥으로 건축된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 연령층별로 목재재료를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에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체험실과 전문 목공실, 놀이터,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졌다.

특히, 어릴 때부터 친근하게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3개월~만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재놀이시설과 놀

이기구를 배치한 나무상상놀이터를 운영한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줘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는 작업 난이도에 따라 1인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20명 이상 단체로 방문할 경우에는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나무상상놀이터 입실 체험료로 6,000원을 받고 있으며, 재료비는 재료구입 단가로 적용해 최소 4,000원부터 최대 36,000원까지 별도의 부담이 없다.

시는 휴양림에서 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오감체험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건강한 금연학교 만들기' 추진

순천시는 흡연 시작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을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건강한 금연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신홍초등학교에서 열린 '금연골든벨'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초·중·고 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골든벨&금연연극' 등 참여형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한 금연학교 만들기 사업'은 기존 시청각 교육에 머물렀던 흡연 예방교육에서 발전하여 직접 또래 친구들과 흡연에 대한 문제를 풀고 금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지를 다지는 참여형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보건소에는 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 지역사회

와 함께하는 '초·중·고 등골든벨 금연캠페인' 실시 등 순천시 미래를 위한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윤자 순천시보건소장은 "이번 건강한 금연학교 만들기 '금연골든벨' 및 금연 연극 등 참여형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금연관련 문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